

FITCH, 필리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표명

국별조사실

- FitchRatings¹⁾는 지난 6월말에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로 유지하며, 아로요(Arroyo) 대통령 취임이후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경상수지,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대외유동성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지표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한 바 있음.
- 그러나,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FitchRatings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재정적자의 확대가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함.

□ 필리핀 최근 경제현황

- 안정된 실질경제성장률 : 공산물수출과 농업생산성의 증가에 힘입어 2002년에는 4.0%, 2003년에는 4.3%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 낮은 물가상승률 : 소비위축으로 수요견인 물가상승 압력이 적기 때문에 2002년 상반기에 3.4%의 상승에 그치고 있어 연간 목표인 4.5%~5.5% 수준 이내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 총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및 유럽 등 대체시장의 적극개발로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과 의류의 수출이 신장되고 있음.
- 양호한 대외채무상환 능력 : 전체 정부채무의 50%가 외국통화표시 대외채무이고 연간 20억 달러의 신규자금조달 부담이 있지만 단기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고 International Liquidity Ratio²⁾도 128%를 상회하고 있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음.

1) 미국의 Moody's, S&P와 함께 Big3로 불리는 영국의 신용평가기관. 1997년 IBCA와 합병후 Fitch IBCA로 불리다가 FitchRatings로 변경

2) 대외유동자산/대외유동부채로 100%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평가됨

□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

- FitchRatings와 해외투자가가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반기중에 이미 연간 목표치인 3.9%를 상회하고 있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임. 브라질 역시 만성 재정적자로 국가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가들은 필리핀이 아시아의 브라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단기외채의 상환부담이 적고,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이 낮은 점은 브라질과 차별되지만 대외채무가 대부분 채권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신뢰 저하는 국제자본시장으로의 차단과 함께 또 다른 금융위기로 다가올 수 있음.
- 특히, 지난해에도 GDP대비 4.1%를 넘어선 재정적자가 올해도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공적채무부담이 가중되어 남미의 경제위기 여파가 전파될 여지를 줄 수 있음.

□ 재정적자 원인과 대책

- 재정적자는 전임 에스트라다 대통령 시기의 방만한 재정운용의 여파가 남아 있고, 전체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조세수입의 징수가 제대로 안 이뤄지기 때문임.
- 한편, 지난 8월20일에는 부패척결을 위해 자체혁신을 추진하던 국세청장 (Rene Banez)이 내외의 거센 사임압력에 물러나는 사건도 발생. 이는 지난달 긴고나(Guingona) 부통령이 정부내 의견차이로 자신이 겸임하던 외교부장관직을 사임한 것과 같은 성격으로 개혁과 혁신에 대한 필리핀 지도층의 반발이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음.
- 2004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적극적인 지출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부패척결로 인한 세수확대와 풍부한 국내 유동성을 활용한 대외자금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요망됨.

책임연구원 이승건 (☎ 6654)
saintlee@koreaexim.go.kr